

LG하우시스 사회공헌으로 독립운동 정신 이어가

3·1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의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 경영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독립군을 지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에게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구인회 LG 창업주는 백산 안희제 선생을 통해 충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 1만원을 전달했고, 부친인 춘강 구재서 공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에게 일화 5천원을 지원했다.

비록 백산 선생은 일제 경찰의 모진 고문을 당하다 1943년 숨을 거뒀지만, 당시 백산 선생이 모금해 보낸 자금 20여만원은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됐다. 창업주의 정신은 LG 계열사의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이어지고 있다.

LG하우시스는 LG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2015년부터 현충 시설 개보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충청 임시정부 청사, 서재필 기념관, 매헌 윤봉길 기념관, 우당 이회영 기념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만해기



1



2

1 만해기념관에서 전보삼 관장(왼쪽)이 관람객에게 연구 자료 등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다.
2 LG하우시스가 개보수해 재개관한 우당 이회영 기념관을 기념관 관계자와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3 개보수 공사를 마친 도산안창호기념관 내부에서 기념관 관계자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총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했다. 또 2016년부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국내외참전용사 분들의 희생에 작게나마 보답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독립유공자(후손 포함) 8명과 국내 참전용사 8명, 해외 참전용사 3명 등 총 19명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G하우시스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후대가 잘 이어받도록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심산 김창숙 기념관을 포함한 독립운동 관련 시설 2곳의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국내외 참전용사 6명의 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업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LG하우시스 대외협력담당 이동주 상무는 "사업역량을 활용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 가문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❶